

## 경제학자가 제안하는 교육 문제 해결 방향 (〈왜 지금 교육경제학인가〉, 김희삼(2021))

남기곤\*

좋은 책을 만나면 저자에게 미안하다. 몇 년간 심지어 몇 십년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가며 쌓아 왔을 저자의 내공을 하루 이틀에 똑딱 읽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 말이다. 이 책의 저자도 내심 아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에는 “교수님, 이거 지금 다 풀어놓는 거 아깝지 않으세요?”라는 강의 자료를 미리 읽어 본 한 방송작가의 질문을 소개하며, “이 책 한 권에 지금 내가 나누고 싶은 얘기들을 대부분 망라”했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많은 내용을 책 한 권에 담으려”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p.408)

음... 경제학자인 저자는 과연 합리적 선택을 한 것일까? 인세라는 금전적 이득을 극대화하고자 했다면 몇 권으로 나누어 책을 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앞으로 이 동네에서의 인지도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속내를 덜 드러내고 속도를 조절해 가며 이야기를 풀 수도 있었을 것 같다. 하지만 저자는 교육 문제와 관련된 그동안 자신의 연구와 경험, 그리고 지식을 이 책에 다 쏟아 부으려 한 것처럼 보인다.

왜 그랬을까? 저자에게는 급한 마음이 있어 보인다. 물밑 듯 다가오고 있는 거대한 파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현재의 한국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물론 기준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지만,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그리고 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해 온 경험에 기초할 때, 이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다. 그냥 탁상공론에 머물지 않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실천적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하다. “왜 지금 교육경제학인가?”라는 책의 제

---

\*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목과 “부모, 교사, 학교, 그리고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바로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부제는 저자가 왜 이 책 하나에 많은 이야기를 쏟아 부으려 했는지 그 의도를 짐작케 한다.

그렇다면 저자는 무슨 이야기를 그토록 시급히 하고 싶었던 걸까? 이 책에는 “왜 경제학자가 교육을 불러냈는지” 문제부터 시작하여,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타당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떤 상황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 ‘전장’에서 어떠한 희망의 싹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인구 쓰나미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고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까지 교육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이슈가 망라되어 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우리 모두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저자의 주장을 맛보기로 소개해 본다.

첫째, 자원배분 과정으로서 교육을 다룰 때에는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기준 외에 타당성이라는 추가적 기준이 필요하다. 이 책의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적 논점 중 하나다. “타당성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내용과 방식이 학생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인가, 특히 미래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p.21) 맞다.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하지만 저자가 예를 들고 있는 대학입시제도를 한 번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수시 전형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른바 ‘학종’)을 지지하는 입장에 선 사람은 이런 이유를 댈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학생의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려는 시도이며 한 학생이 자기의 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를 총체적으로 살피는 것으로서 수능 1,2점 차이로 당락을 가르는 것 보다 더 타당성을 가진다.” “그럼 이런 주장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수능은 각자가 노력하면 그래도 점수를 얻을 수 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부모의 배경이나 학교의 뒷받침이 따르지 않으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불공정한 제도다.” (pp.23~24) 몇 년전 마스크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다. 절차적 공정성이 극단적으로 강조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교육 측면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저자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 저자도 인정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입시제도의 설계나 입학시험의 출제에 있어 효율성이나 형평성, 공정성 등 다른 기준 못지않게 교육의 타당성에 미칠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p.32)

둘째, 교육사다리가 무너지고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상황이 된 우리 사회에서 교육의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공 경로를 다양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교육이 소수의 승자를 만드는 사다리가 아니라 많은 이에게 여러 도전이 도사리는 세상의 협곡을 건너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른바 명문대학의 선호학과를 나오지 않더라도 스스로 성공적인 삶이라고 자부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성공 경로가

존재하고 가치관도 성숙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pp.110~111)

이 역시 대부분의 사람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야기다. 문제는 ‘어떻게?’다. “이를 위해서는 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직업 세계에 눈뜨고 기존의 직업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포부를 갖게 해주어야 한다.” (p.135) “더 좋은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실업계고의 비중이 커지거나 일반고에서도 학생의 적성과 진로 계획에 따른 과목 선택 폭이 넓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실무 역량이 아닌 학력에 따른 차별은 없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채용 방식의 변화도 요구된다. 또한 고교 졸업 직후에 대학에 가지 않고 관심 및 필요 분야가 생겼을 때 대학 문을 두드려도 입학에 불리하지 않도록 대입 전형 체제도 평생교육형으로 전환해갈 필요가 있다.”(p.141)

가능할까? 사실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실제 효과를 본 경우는 별로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저자가 소개하는 홍콩의 고교 단계 교육과정 개혁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준비 중에 있는 고교학점제와 맞물리면서 한 줄기 희망을 갖게 해준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홍콩이 교육개혁에서 성공 경로의 다양화를 표방하고, 이를 위해 모든 학생이 저마다 선택한 배움을 얻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점은 많은 학생들이 획일적인 시간표의 수업 속에서 무기력하게 엎드려 자는 우리 교실에 영감을 준다.” (p.146)

셋째, “명문대 출신을 우대하는 노동시장의 학벌주의, 학력 및 학벌에 따른 임금과 근로 조건의 심대한 격차, 저학력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사회적 안정망의 불충분성 등 교육 외적인 요인의 영향”을 감안할 때, “아무리 교육 내부적인 개혁을 시도해봐도 교육 수요자들의 목표가 교육 외적인 보상에 있는데 그 개혁이 성공하겠는가?”라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저자의 대답.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등 사회구조적 변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교육의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것은 교육 자체에 내재된 여러 가지 문제조차 그대로 방기하는 것이다. 가령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것은 수업 방식이 달라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또한 학생들이 서로 믿고 협력하지 않고 견제하고 경쟁하며, 생각하기보다 외우려고 하는 것은 평가 방식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다.” “교수자, 학생, 학부모 등 교육 당사자와 정부, 교육청, 학교, 대학 등 교육을 바꿀 수 있는 주체들이 교육 영역에서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교육발 사회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pp.197~198)

글쎄... 소위 명문대학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 시절부터 사교육에 매달리는 한국의 사회 풍토와 그 근거가 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극심한 불평등 상황에서 ‘타당성’을 갖춘 교육개혁이 과연 가능할까? 진보진영에서 시도했었던 혁신학교 사업도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그 효과가 지속되기 어려우며, 대학 교육을 혁신하라고 각종 재정지원사업들이 지원되고 있지만 무늬만

혁신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은가?

아직도 여전히 혁신은 서지 않지만 저자가 제시하는 싱가포르 사례는 흥미롭다. ‘강의는 줄이고 배움은 늘리자’는 구체적인 교육 비전 하에 “우선 기존의 교과별 교육과정을 21세기 핵심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수업 방식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교수자의 강의 위주 수업에서 학생들 간의 협동학습으로 바꿔 학생들 스스로가 지식과 학습에 관해 토론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배우는 경험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 본인의 경험도 인상적이다. 소속 대학인 지스트에서 무한도전 프로젝트 사업을 지도하면서 학부생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고등학생을 지도했을 때 보다 높은 성과가 나타나는지 직접 임상실험을 실시하도록 도와 주었던 사례. 교수학습법이 수강생들의 사회자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예 자신의 수업을 강의 위주로 진행하는 경우와 팀 프로젝트와 조별활동으로 진행하는 경우로 나누어 성과를 측정해 보았던 사례.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학생들을 수업의 구경꾼으로 만드는 이른바 ‘학습관광’은 수명을 다하고 있다. 좋은 인터넷 강의가 넘쳐나는 시대에 왜 학생들을 교실에 불러 모았는지 학교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진짜 교수자들이 행동할 차례다” (p.210)

넷째, 급속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진보가 불평등과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고 신기술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앞서가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저자는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계층, 지역,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미래사회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공교육과 평생학습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p.377) AI 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애리조나주립대의 AI 기반 맞춤형 학습 시스템은 학생들의 학습 성취 수준을 높였다. “이것은 AI가 기초학력이 높고 수학에 소질이 있는 학생에게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학습 과정을 유도하고, 다소 이해가 더딘 학생은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해가면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한 덕분이었다” (p.388)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육에서도 AI 기반 학습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한다. “통계학 기초 지식에서 최하위권이었던 학생 2명이 맞춤형 학습 후 최상위권으로 도약하는 일도 나타났다. 인간 교수자라면 포기했을 학생도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AI 교수자는 지치지 않고(화도 내지 않고) 끝까지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다”

흥미롭다. 물밑 듯 닥쳐오는 신기술은 교육자에게도 산 넘어 불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교육이 신기술과 사회 변화에 눈감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포섭하여 출발원상에 통합시키면, 기술은 모든 이의 능력을 높여 여가와 소득을 동시에 늘려줄 수 있는 평등한 도구가 될 수 있다.” (p.407)

경제학 서적 답지 않게 이 책은 쉽고 재미 있다.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술술 읽힌다.

하지만 결코 가벼운 책은 아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교육 전문가라고 하지 않는가. 아마 독자들도 책을 넘기며 계속 “정말 그런가?” 혹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데?” 이런 생각이 머리 속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본인과 같이 이 분야에 연구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주장이 확실하게 입증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어쨌든 신선하고 유익하며 보다 발전된 토론과 논의를 진행하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책임은 분명하다. 한국의 교육에 불만이 있는 모든 분들께 일독을 권한다.